

타 로스쿨 학점 30학점까지 인정 -교육과학기술부 입법예고...결원 보충 3년 연장

로스쿨 학생들은 앞으로 국내의 다른 로스쿨이나 외국 로스쿨에서 취득하는 학점을 30학점까지 자신이 다니는 국내 로스쿨에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해당 로스쿨 입장에선 특성화 과목 등의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은 그만큼 다양한 교육의 선택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15학점까지로 되어 있는 타 로스쿨 취득 학점의 인정 범위가 30학점까지 확대되게 된다.

개정안은 또 2013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적용하도록 한 로스쿨 결원 관련 부칙 조항을 2016학년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2016학년도까지는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해 정원에 결원이 생길 경우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 만큼 추가로 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원 인원만큼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추가로 뽑는 인원이 당초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는 없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로스쿨에선 자퇴 등에 따라 해마다 100명 가량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